

비상대책위원회 제휴카드 관련 협상 급물살

제휴카드 할인율 조정으로 가닥

지난달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가 제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휴카드와 관련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대위는 SK텔레콤, 파리바게뜨와 협상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40%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제휴카드 할인은 유지하도록 결정하고 최소 할인율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제과점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글: 김영주 기자 · 사진: 김창민, 김영주

국 제과인 지회·지부장 회의

주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 보호·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
 일시: 2005. 11. 28(월) 장소: 대전 로얄관광호텔



지난해 12월은 결산의 시기답게 제휴카드 폐지 활동도 종반을 치달았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자 파리바게뜨와 SK텔레콤 양사는 제휴카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을 제안해왔다. SK텔레콤에서 "앞으로 제과업계와 업무제휴 계약 체결을 위해서 (사) 대한제과협회 등 업계 전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휴카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 개최

SK텔레콤이 제휴카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제과업계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11월 28일에 계획되었던 가두집회를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1월 28일 가두집회 대신 대전에서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를 갖고 SK텔레콤의 입장을 전국 지회·지부장들에게 전달, 가두집회 연기 결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날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는 앞으로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와의 협상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다수 지회·지부장들은 비대위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비대위 투쟁자금 모금에 대해서 각 지회·지부가 12월 말까지 모두 모금을 완료하도록 결의했다. 지회·지부장 회의를 통해서 협상 여부가 결의됨에 따라 비대위는 SK텔레콤, 파리바게뜨 양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1 11월 28일 대전에서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가 열렸다.
 2 12월 2일 프랜차이즈 3사와 비대위 간의 할인율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3, 4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에서 제휴카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비대위, 할인율 조정으로 의견 결정

SK텔레콤에서는 "할인 카드를 갑작스레 폐지하는 것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전하며 "하지만 최대한 자영제과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자영제과점도 파리바게뜨와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파리바게뜨도 "할인카드를 없애는 것이 단순히 본사 결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가맹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힘들다"고 밝히고 "할인율을 낮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비대위를 비롯해 제과업계에서 정한 할인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에서는 양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한 결과 할인카드 폐지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일 (사)대한제과협회 사무실에서 비대위 공동위원장,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파리바게뜨, 푸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할인율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휴 카드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할인율 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3사는 비대위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비대위는 자체 회의를 열어 자영제과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인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거쳤다.

SK, 파리바게뜨와 실시하는 현행 할인 혜택 폐지

비대위는 프랜차이즈 3사와 가졌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7일부터 SK텔레콤과 몇 차례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다. 회의를 통해서 비대위는 SK텔레콤 측에서 원하는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에 현재 파리바게뜨와 실시하고 있는 일반 20%, VIP 40%의 할인 혜택은 계약이 끝나는 12월 31일자로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휴카드 할인에 대해서는 파리바게뜨는 물론 자영제과점도 함께 고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다. 이에 SK텔레콤은 파리바게뜨와 실시하는 현행 할인 혜택은 폐지하고 파리바게뜨와 자영제과점 모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제휴카드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으로 비대위와 SK텔레콤은 구체적인 할인율과 할인 시기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에서는 업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 조율한 후에 SK 텔레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며 SK텔레콤과 할인율 하향 조정이 결정됨에 따라 푸레쥬르나 크라운베이커리와 연계하고 있는 KTF, LG텔레콤에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제과업계 전반에서 할

인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제휴카드 폐지 운동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가 실시하고 있는 할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빵 가격을 할인해 주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는 다른 외식산업과의 경쟁력을 고려하고 제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유지될 예정이다. 과거의 대기업간의 불공정으로 맺어진 제휴카드 할인서비스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자영제과점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제과 업계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과인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일지

- 06/16 비대위 결성-김종주·유현식·이기남·이상태·조계중·주재근·최원도·황일하 공동위원장 선출
- 09/09 비대위 사무국 개설
- 09/29 비대위 소식지 발간-전국 자영제과점, 정부 단체, 국회 부처, 언론사 발송
- 10/13 Siba 행사장 내 서명 운동
- 10/18 비대위 홈페이지 오픈 www.vbakery.or.kr
- 10/19 이동통신사 및 프랜차이즈에 제휴 철폐 요구 1차 공문 발송
- 10/21 2차 공문 발송
- 10/24 '제휴카드가 자영제과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 10/27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
- 11/03 종로경찰서에 SK텔레콤 앞 집회 신고
- 11/07 전국자영제과점대회 집회 추진
- 11/18 파리바게뜨 관계자 면담-큰 진전 없이 답보
- 11/24 SK텔레콤 관계자 면담-(사)대한제과협회 중심의 제휴사업 약속
- 11/25 비상위원장의회의 11월 28일 집회 잠정적 유보
- 11/28 전국 지회·지부장 회의 개최
- 12/02 프랜차이즈 3사와 할인율 조정 회의
- 12/07 SK텔레콤 관계자와 할인율에 대한 의견 조율
- 12/13 SK텔레콤과 세부적 의견 조율 1차 회의
- 12/19 SK텔레콤과 세부적 의견 조율 2차 회의